

지 상 법 석

'부처님 바다' 못 들어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나를 깨닫도록
우리는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의 몸체입니다. 비로자나 전신은 화염경에서 말씀하신 지혜의 바다인 해인삼매입니다. 화염경의 해인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아니고 바다와 같이 깊고 한량없는 삼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부처님의 비로자나 삼매 속에서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문수보살로 부터 보현보살로 호칭할 때, 보현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변자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 설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재동자는 어째서 발심을 했습니까? 선재동자와 같은 이윅에 똑같은 나

의 세계를 떠나서 부처님의 해인삼매 속,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서 영경토록 죽지 않는 우리의 삼막삼보리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설법을 듣고 발심해서 부처님의 법계에서 부처님의 크고 넓은 진리를 구하고 생사의 바다에서 해엄쳐 무생법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산림의 화엄은 화엄이라 하는 실제화엄, 중생화엄, 법계화엄과 여기에 실제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 영단의 위패와 그동안 기도 드리고 설법을 들은 분들과 또 그 원력이 남고 그 법력이 남아서 모든 중생계에 미치고 그러고도 남으면 법계, 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고루고루 부처님은 경동하

도중생을 위해서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은 상주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결례기 옷을 보았지 부처님의 자성자리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선사는 선사의 옷을 보고, 남자는 남자의 옷을 보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보고, 군인은 군대의 군복을 보고, 경찰은 경찰의 복색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만약 군인이 군복을 벗고, 경찰이 경찰의 옷을 벗고, 여자가 여자의 옷을 벗고, 남자가 남자의 옷을 벗고, 모두 벗어놓고 일어서면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상은 똑같습니다. 선사나 부처님이나 달마나 그 제성, 진여의 체는 똑같습니다. 이 지구의 인

과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의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는 다르지만 해가지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비로자나 광명의 빛을 받아서 설법하는 53선지식이 마치 해가 동쪽에 뜨면 햇빛을 받아서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물도 보고 집도 보고 빌딩도 보고 차도 보고하듯, 만일 햇빛을 받지 못하면 분별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뜨지 않으면 캄캄한 허공지옥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면 그 빛을 받아서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와같이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삼매에 들고 설법을 하는 것이고, 모든 보살은 부처님의 신력과 광명을 받아서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합니다.

법계는 일체가 평등
모든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슬피여 기고 중생을 어버리게 여기지만 중생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상념자(常念子)해도 자(子)는 불멸부모(不念父母)라
부모는 항상 어린자식을 걱정하고 생각해도 자식은 부모를 생각 못하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양 형 진

연기에 의한 감각경험

얼마전 어느 불교대학의 강의에서 비담물은 왜 깨닫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국민학생 수준의 질문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물은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답변은 종교학의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무기물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데, 오랜세월 물이 증발하여 농축됨에 따라 비담물은 높은 농도의 무기물을 포함하게 되고 특히 그중에서도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짠 맛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어떤 화합물이 들어있지만 어떤 짠 맛은 저절로 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이 그렇게 자명하

인 예로 하늘색만을 감지하는 생물이 있다면, 이 생물은 하늘색과 무지개를 구별하지 못하여 무지개라는 현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시각과 미각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모든 감각 기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청각에 있어서도 인간은 특정한 주파수 즉 20에서 20,000사이의 음에 해당하는 음만을 들을 수 있다. 그 한 예가 우리는 초음파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후각이나 촉각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각은 제한적이며 또한 선택적이어서, 인간이 감지하는 생리 한계 내에서 우리의 신체는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대상과 화합되어 있어야 지각경험이 나타나게 된다.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만으로 무지개는 생기기 않는다. 적절한 위치에 있는 물방울, 태양, 광학 법칙, 우리의 감지 기능이 모두 화합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감각 기능에 대하여 이 감각 기능에 관련된 감각을 제공하는 객관이 화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의 지각경험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 경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이 지각경험을 제공한 대상은 비로소 짜다거나 무지개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엮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연경에 서는 이를 "모든 것이 인연에 화합하면 허락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벌리 하면 허락하게 멸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무색성형미축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대비보살은

대상 화합 때 지각경험 나타나 빛을 감지할 수 있기에 무지개 색깔 보여

다교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아주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사실이 모든 생물에 대해 보편적일 수는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짠 맛을 감지할 수 없는 생물이 존재한다면(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아마 그럴 것 같다). 인간에게는 아주 짠 소금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물은 전혀 짜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대답은 인간의 미각을 전제하여 야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과 관련하여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무지개는 왜 생기는가? 이는 대학교 수준의 물리학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굴절과 반사의 법칙, 그리고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은 굴절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비가 온 후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떠 있으면 태양의 반대쪽 방향에 동글게 무지개가 뜨는 이유를 위의 설명으로 부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의 시각 기능을 전제로 한 답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빨강색에서부터 보라색에 이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빨강색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이나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다면 무지개는 9가지 색이 될 것이다. 빨강색만을 감지할 수 있는 생물은 무지개가 빨강색 만으로 만들어진 원호가 될 것이다. 더 극단적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색성형미축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안이비실신의를 얻을 수 있었는가? 안이비실 신의가 없다고 한다면 색성형미축법도 또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오직 인연에 화합되었다. 이는 곧 생멸법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객관 세계의 성품을 말한 것이다. 이는 객관 세계가 본성을 가지 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며, 이 문제를 이 글에서는 언급만 하고 자세하게 취급하지 못한 '우리의 지각경험에 나타난다'는 문제와 함께 언급해보자.

이 글과 연관시켜 한 가지 하고싶은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불교를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인연 불교를 과학과 연관시킬 때에도 현대의 첨단 과학과의 관계가 많이 논의된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고전과학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는데 현대과학에 와서 비로소 제대로 조명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첨단 과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과 연관되는 과학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증해 준다는 점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으며 또 그대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백년후 '나' 생각하며 생사초월 소식 깨닫자 삼세제불·역대조사들도 대신 공부 못해줘

이 일곱살 먹은 동자가 셋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한사람 죽고 또 일주일 전에 한사람이 죽고 이번에는 선재동자가 병으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 습니다.

대자연의 적멸법문

여러분도 일주일전에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일주일 후에 여기있는 사람도 그 중에 누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무상, 그 늪으로 빠져들고 또 앞으로 일주일, 1백년 후에는 여기있는 사람 모두가 이자리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없 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 계 실까요. 여러분은 살다가 늪에 빠지고 병들고 죽는 이 생사의 늪에서 참으로 부처님의 비로자나 전신, 그 법신체에 귀의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사를 초월한 진여에서 살지 않으면 다시는 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우리의 육신을 떠나고 우리의 이러한 형상의 세계, 무상

게 널리 화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산림의 화합이요, 우리 선거에서는 반 산림이라 합니다.

법신(法身)은 항적정(恒寂靜)하고, 청정(淸淨)은 무위상(無爲常)이로다.

법신자리는 말로 소리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킬 수도 없고, 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대변제라 항상 적정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대우주는 침묵하면서도 큰 변제를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는 불법문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법문을 하고 추우면 바람소리, 물소리, 저 단풍잎도 대 자연의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법문을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백문의, 천문의, 만문의 일도 거기에 속하지 못합니다. 대 자연은 침묵으로써 말도, 색상도 없고 형상도 없이 그림자가 없는 그러한 침묵의 적멸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문을 들을 줄 모르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생사의 굴레에서 육

구가 다 벗겨버리고 나오면 몸은 똑같 습니다. 서양사람, 동양사람이 머리끄고 이 자리에 서면 하나도 다름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여의 제상은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똑같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든 얼음은 빙처럼 생겼고 고드름은 하릴라야 실산처럼 생긴 것처럼 각기 그 모양은 다르지만 만약 그 물이 녹으면 그 모양이 하나도 다름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눈이, 얼음이 다 녹으면 똑같은 물로 되듯 진여도 똑같 습니다. 대한민국의 물이 다르고 서양 의 물이 다르고 미시시피강의 물이 다르고 갠지스 강의 물이 다릅니까?

다 같습니다. 대해에 들어가면 성인이나 범부나 그 일체는 모두 똑같습니 다.

우리가 화엄경에서 말하는 진여에 들어 선재동자와 같이 법계에 들어가 면 선재동자의 자성이나 우리의 자성이나 중생의 자성이나 부처님의 자성이나 법성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해인삼매입니다. 겉모양 보

것과 같습니다.

그와같이 모든 제불은 중생을 위해서 모양을 바꾸시고 태어나시고 생사를 보이시지 중생을 위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시련하지 않고 역대 조사, 선사도 없습니다. 다 중생을 위해서 모양을 보이시고 시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세계가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아집이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 처럼 거기에 살고있는 중생은 거기 밖에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밖에 모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물안 개구리, 그래서 부처님의 넓 은 대해 같은 불교의 화엄경의 도리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합 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의 화엄은 너무나 광범해서 듣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화엄산림 화합에 이르러서 그동안 수고하신 법사스님과 제불보살님, 그리고 갖가지 방편으로 선재동자가 친견 하고 찾아가는 구비구비 곡절마다 간곡한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같이 부처님을 찬송합니다.

철사와 풀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흥법등

흥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흥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흥법등은 종전의 몸체 기구개시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한니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역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일일이 풀철을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흥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종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작아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 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이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행사 당일 번거 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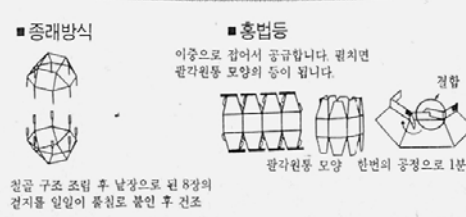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흥법기획**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 흥법 정업등** 영가 등 (신용신안 14461호, 위장등록 38353호)
- 연등 조립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강철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철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조립등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철을 붙임
-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찬도 등으로 거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 생극락을 발원
- 천도 광명등** 선방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거지에 부모모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용

1분 완성 흥법등의 구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032) 613-4027-8 팩스: (032) 665-0965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초교리 입문서 천수경강의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석우스님 지음

교리강좌 10년 강의의 총결산 완전한 기초교리입문서 완성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혼동할 필요없습니다. 불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 책 속에서 찾으십시오. 불교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진작에 누군가 썼어야 할 책입니다. 이제 불교를 미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진리이고, 과학입니다. 지성인과 미래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석우스님 지음/신국판/404쪽/값 6,500원

관음 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720-1147-8